

# 姜 “수도권 집중은 국가 질병”... 金 “지역실정 맞는 입법 보장”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 정책 발표

강시장, AI·미래차·실증 정책 등  
광주만의 미래산업 제시  
김지사, 에너지·관광·농어업 등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창출



강기정 광주시장이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 참석해 지역 인  
구감소에 대응한 광주의 산업정책과 인재양성 로드맵 등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 참석해 '독일연  
방제에서 보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 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1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인공지능(AI)과 미래 모빌리티로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기회 도시 광주'를 주제로, 김영록 전남지사는 '독일연방제에서 보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발표를 했다.

강 시장은 저출생 인구 위기 현실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미래산업 필요를, 김 지사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 “지역이 살아야 나라도 살아”=강 시장은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며 “광주만의 전략적 미래산업 설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 지역경제 세션 발표에서 지역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광주의 '전략적 선택'을 강조하고, 인공지능 등 광주의 미래산업과 발전전략 등을 소개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정치적으로 전략적 선택을 하는 도시로 이름 높지만 산업에서도 전략적 선택을 한 도시”라면서 “1960년대 산업화 시대에는 자동차 산업(아시아자동차)을, 2000년대 외환위기 시대에는 광산업을, 2018년에는 대한민국에서 선제적으로 인공지능(AI)을 택했다. 그 선택이 오늘날 2개 완성차 공장 보유 도시, 광산업 도시, AI 중심도시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강 시장은 또 “수도권 일극체제는 국가질병”이라고 진단한 뒤, 지역균형발전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큰 효과가 나지 않는다. 이제는 산업과 교육이 지역으로 와야 하고 이를 위한 메카니즘이 구축돼야 한

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AI(인공지능)사관학교, GCC(광주실감콘텐츠허브)사관학교 등 인재양성 프로그램과 인공지능(AI), 미래차, 실증 정책 등 광주만의 미래산업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이어 미래차국가산단 및 소부장특화단지 지정 등의 민선 8기 성과를 설명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심도시 광주는 이제 대한민국 인공지능(AI)을 리딩하는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며 인공지능과 결합한 'AI문화중심도시'의 청사진도 밝혔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을 이끌고 있는 광주시는 국내 유일 국가AI데이터센터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700곳이 넘는 기업과 기관에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특히 내년부터 도시와 일상, 지역 산업을 바꾸는 AI 전환사업(AI 2단계)에 나설 예정이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과 결합한 AI문화중심도시로의 도약도 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시장은 “아시아 여러 나라와 교류하며 5·18의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만들어진 것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고, 그 상징물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5·18민주화운동의 한복판 옛 전남도청에 세워졌다”며 “ACC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인프

라와 인적 인프라의 결합을 통해 광주는 명실상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AI문화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실질적 지방분권 필요성 강조=김 지사는 정책콘퍼런스를 통해 “독일·프랑스와 같이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독일 연방제로 보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의 한계와 극복 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실질적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독일의 경우 모두 51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을 통해 주(州) 정부의 자치행정을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입법을 보장하고 있다는 게 김 지사 설명이다. 김 지사는 또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조세 주권 부여 등으로 중앙과 지방의 역할·기능을 명확하게 분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앙은 정책·제도·지침 등을 제시하고 지방은 보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

앙정부의 권한 강화로 지방분권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남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1970년대 331만 명이었던 인구가 현재 180만 명 이하로 감소했고, 지역내총생산(GRDP) 96조 원 중 32조 원이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

김 지사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주 발사체산업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에너지, 관광, 농어업과 같은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 집중적 권한으로 제약이 많다는 점을 토론했다.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만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는 자율계정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자율계정의 71%가 재해예방 사업 등 국가사업 성격으로 고정되다보니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쓸 예산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도 인·허가 권한을 중앙이 가지고 있어 산단 조성 절차가 지연되는가 하면, 도지사에게는 3MW 이하만 풍력발전 허가 권한이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독일과 프랑스의 지방분권 모델을 소

개하며, 독일은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방상원과 공동세 배분 방식 등을 통해 지방에 실질적 권한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프랑스의 경우 지방정부 대표 등이 상원을 구성해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며, 중앙과 지방의 사무 배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을 신설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명확한 사무배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성과 책임에 기반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보장을 통해 지방이 실질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가 추진하는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전남이 잘 할 수 있는 에너지, 관광, 농어업, 첨단산업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며 “전남에서 먼저 해보고, 그 성과는 모든 지방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지방분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사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조국혁신당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참여 진보 분열 아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광주를 찾아 “조국혁신당의 등장에 ‘진보 진영 분열’이라는 프레임이 씌우고 있는데, 이번 (10·16 재보궐) 선거는 대신 아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민주진보진영과 정권교체에는 연대와 협력으로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혁신당의 원칙에는 변함없지만, 민주당과 정정당당하게 겨뤄 유권자들에게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

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혁신당과 민주당이 경쟁하면 좋은 점만 있다”며 “지역 정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 더 좋은 후보와 정책이 많아지고 지방정치 혁신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호남에서 혁신당과 민주당 중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에 득이 되는 일은 없다”면서 민주당과의 선의 경쟁이라

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보다 재정도, 조직도 비교할 수 없이 부족하지만 오로지 지방정치 혁신과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정정당당하게 이번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소속 군수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를 치르는 곡성에 다시 후보를 낸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곡성군수 선거의 경우 민주당 군수의

## 조국 대표, 광주서 기자회견 “민주당과 정정당당하게 승부”

귀책 사유로 다시 치러지는데 당류를 바꿔서까지 후보를 낸 것이야말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영광에 두 번 방문했는데 첫 방문 때와 느낌이 달랐다”며 “두 번째 방문 때는 ‘영광을 위한 구체적 정책이 무엇인냐’는 상인들의 질문에 혁신당에 대한 관심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낼 것도 공언했다.

그는 “추석 전 영광·곡성 맞춤형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며 “혁신당 국회의원 12명 모두가 영광·곡성 군수라는 마음으로 땀 흘리고 선거 이후에도 군수처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12명이 군수가 된다는 각오와 결의, 계획이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조 대표와 당 지도부는 영광·곡성에 월셋집을 구하고 선거 총력전에 나섰다.

앞서 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전 영광 법성면 굴비 거리를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 후 전남대에서 총학생회 초청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특강도 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대한민국 대표관광지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한국, 일본, 대만.. 마침내 홍콩까지!  
**아시아 신행로를 열다**

Costa  
코스타 세레나호 · 11만 4천톤 · 전장 : 290m · 폭 : 35m · 수용인원 : 3,780명 · 승무원 : 1,100명

대한민국 크루즈 선도 기업  
13년 연속 크루즈 전세선 운항  
대한민국 크루즈 순위 1위

광주지사 1688-1104

한국 / 일본 / 홍콩 / 대만  
**아시아 4개국 크루즈 11일**

2025년 1월 6일 인천항 출항

조기예약 40만원 할인 + 선착순 선실 우선 배정  
예약 후 24시간 이내 1인 예약금 100만원 입금 및 9월 30일까지 완납 조건

내 측 2,890,000원~ 오션뷰 3,290,000원~  
발코니 3,690,000원~ 스위트 4,490,000원~

인천항 - 오키나와 - 이시가키 - 홍콩(1박 2일) - 기륭 - 부산항

1 홍콩의 낮과 밤을 모두 즐기는 홍콩 OverNight  
2 겨울에 만나는 따뜻한 겨울(평균온도 22℃)  
3 크루즈 특별 공연 · 이은결의 일루션 특별공연, 셀럽 특별 콘서트  
롯데관광 크루즈 스태프, 가수왕 선발대회  
4 13년 노하우! 한국맞춤형 특별진세션

**이은결의 일루션 특별공연**

롯데관광 특별 초청 게스트!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코스타 세레나에서 펼쳐집니다.

GRAND HYATT 제주  
예약 · 문의 : 1533-1234

기적포함내역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된 당일여행 및 개별상품은 미적용) 가이드기사경비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자체한 사항 홈페이지 참고),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이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안전경비내역] ●여행유류 / ●여행자세 / ●입수권 / ●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 [메니지] 서비스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음  
●종로구청 · 일반여행업 제467호(서울시 중로구 세종대로 149 롯데관광개발(주)) ●일반여행업 영인보증보험 10억원 가입 ●기획여행 보증보험 5억원 가입 ●여행보험비지 · 인천(김해/대구/부산/청주공항) ●여행보험처리센터 : 1588-8692  
●최소출발 10명(일부상품제외) ●2급호텔 이상 2인 1실 사용 ●교통편 · 항공, 버스, 해리, 크루즈(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열차표, 입장권, 숙박권 등은 판매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